

미국 대학의 일본 진출 실패 원인과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馬越 徹

일본 나고야 대학 교육학부 교수



1. 서론

일본에서는 매년 10월이 되면, 서점의 진열대 위에는 다음 해의 대학 입학 안내서가 쌓인다. 금년에도 여러 대학·단대·전문학교의 안내서가 뿔뿔이 늘어서 있다. 그에 덧붙여 유학 코너에는 미국대학 유학 안내, 토플 관련 서적이 수북이 쌓여 있어, 젊은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안내서를 보아도 미국대학의

일본분교¹⁾ 안내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고교생에게 이미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는 매력있는 수험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현재는 그 존재를 아는 사람도 적다. 그도 그럴 것이 1980년에 설립된 꽤 많은 미국대학의 일본분교의 대부분은 폐쇄되고, 현재 몇 개 남아있는 학교도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1980년대 붐을 이루었던 미국대학의 일본분교가 불과 수년 사이에, 왜 그 대부분이 폐교에까지 몰리게 되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 번역 : 이동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

1) 필자는 미국 대학 중 일본에 진출한 대학을 '미국대학 일본교'라고 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를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로 표기하였다.

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는 소위 거품경제 최성기에 일본에 상륙하여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일·미 양국의 대학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일·미 교육마찰로까지 발전한 불행한 경험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 이는 대학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대학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 고등교육계에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다.

2.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란 무엇인가

독자들에게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미국대학의 일본분교가 몇 개 있는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정확한 수를 모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는 당연히 미국의 대학이기 때문에 일본의 문부성이 행하는 학교기본조사통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는 문부성의 대학설치기준에 의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일본의 대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덧붙여 1991년에 결성된 재일 미국대학협회(AACUJ)에 가맹한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는 당시 21개교였지만 그 후 수년간에 걸쳐 폐교가 계속되어, 1995년 말 현재 이 협회의 회원교로 남아있는 것은 불과 6개교에 지나지 않는다.

또다른 한 문제는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라 해도 설치형태나 교육프로그램 및 수준이 각기 달라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

해서는 감정적인 정의를 내려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일본측 파트너(스폰서)를 기준으로 분류해 두는 것이 당분간 유효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는 대략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형태 1 : 일본의 지방자치체(都道府縣의 하위에 있는 市·町)가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고 미국의 주립·사립 대학(4년제·2년제)을 유치한 사례

(예) 미네소타주립대학기구秋田校
- 秋田縣雄和町
남일리노이대학 新潟校
- 新潟縣中條町

형태 2 : 일본의 각종 학교나 전수학교(미국의 proprietary school에 상당)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4년제 대학·대학원과 제휴한 사례

(예) 설리반 커뮤니티 칼리지富山校 - 富山經濟專門學校
컬럼비아대학 Teachers College(대학원) - 사이마루 아카데미

형태 3 : 일본측 파트너를 갖지 않고, 미국 대학 독자의 경영전략으로 일본분교를 개설한 사례

(예) 템플 대학 일본분교(Temple University Japan)

이들 외에도 일본의 기업이 미국의 대학교육 프로그램과 제휴한 사례나 일본의 사립대학과 미국의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소·연구센터를 개설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 등 일·미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협력사업이 있으나, 이들 모두를 합해도 현재 교육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대

학 일본분교는 십수 개교밖에 없다. 이 글에서 문제로 하는 것은 주로 위의 세 가지 형태의 미국대학의 일본분교이다.

먼저 최초로 문제되는 것은 형태 1이다. 형태 2, 형태 3도 미국대학 일본분교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들은 소위 순수한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경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요가 없어지면 규모의 축소 내지 폐교도 피할 수 없다. 원래 일·미 양국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태 1은 뒤에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미국의 대학이면서 일본의 지방자치체가 토지·건물 등에 주민의 세금(공금)을 들여 설립된 아주 특이한 대학이다. 게다가 이 형태의 미국대학 일본분교는 정권 여당(자유민주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이 미국 의회의 대일 강경파 의원을 달래기 위해 설립되었다.

3. 불행한 시작 - 정치·경제적 의도의 선행

우선 밝혀둘 사실은 형태 1인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를 그 당시의 행정부가 지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나카소네 내각이 수상 직속의 임시교육심의회를 설치하여 '교육의 국제화'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중에서 미국대학의 일본분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명확하다. 당시 교육의 국제화 논의는 어디까지나 유학생의 유치나 외국대학과의 교류(대학간 협정) 촉진 등이 중심 주제이고, 외국 대학의 일본 유치는 그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미국대학의 분교라는 일종의 진귀함도 하나의 이유가 되

어,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선전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붐 현상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붐의 배후에는 일·미 쌍방간 의도가 있고, 게다가 양국은 모두 정치경제적 요소가 강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측은 일·미간 무역불균형(일본의 수출 초과)에서 오는 적자를 긴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었고, 미국의 각 주정부는 일본의 주요 도시에 주사무소(State Office)를 설치하여, 수출 촉진에 힘쓰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측의 노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본의 유력한 국회의원(정권 여당)이 1986년 '일·미 무역확대 촉진위원회(CPTE)'를 설치하였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대학의 일본 유치가 검토되었다. 무역 마찰의 해소와 대학 유치라는 일견 관계가 없는 두 가지 사항이 결합된 배경에는 일·미 양국의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도가 공유되고 있었다.

첫째, 무역 마찰의 배후에 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을 극복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문화교류 거점으로서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를 일본에 유치하는 것은 상호이해를 깊게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미국은 당시 학령인구의 감소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고객(학생)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원래 시장원리로 대학을 경영하는 미국에서는 새로운 고객으로서 미국내의 성인학생과 정시제 학생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 증대와 대학 자체의 해외진출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러한 시기에 일본측이 일·미 무역확대촉진위원회를 만들어, 미국 대학 유치를 명확하게 내세운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셋째, 일본측도 특히 지방도시는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과소화 현상이

심각하게 되고, 도시로 나간 적은이를 불러들여 지방을 활성화하려는 기업 유치와 함께 대학 유치는 매력적인 사업이었다. 게다가 그것이 미국의 대학이라면 지방의 국제화 전략으로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많은 지방자치체가 이 일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마침 일본의 18세 인구(대학입학 연령)는 전후 최고의 정점(약 200만 명)을 맞이하여, 대학입학난이 심각해지고 있었으므로 학생 확보의 전망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언뜻 쌍방의 이해가 일치된 것처럼 보여 미국대학의 일본분교 유치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도중에 예기치 못한 많은 함정이 있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대학 유치라는 교육사업에서 일·미 무역마찰의 해소와 지방의 활성화라는 정치 경제적인 목적이 선행되어 시작된 것에 큰 문제가 있었다.

더욱 나쁜 것은 일본 정권 여당의 유력의원이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대학 유치를 계획했던 것에 있다. 또 유치를 촉진한 일본의 지방자치체는 대학 운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소규모의 시나町(우리나라의 읍에 해당함)이었다. 그러므로 수년 후에 18세 인구가 격감하는 것조차 담당자의 염두에는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덧붙여 일본의 대학을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립·공립·사립의 3종류가 있지만, 지방자치체(都道府縣) 소관의 모든 공립대학은 가장 규모가 작고 재정적으로도 빈약하여, 전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부문이었다. 이같은 都道府縣보다 더욱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체(市·町)가 미국대학의 유치에 적극 나선 것에 일종의 무리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4. 쌍방의 오산

애초에 일·미 무역확대촉진위원회(CPTE)가 중개자가 된 미국대학 유치는 순조롭게 시작될 것으로 보였다. 1989년 현재 30여개의 자치체가 미국대학 유치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일본 진출에 관심을 나타낸 미국대학은 100개교를 넘었다. 유치 작업은 일본측 자치체의 ① 방미조사, ② 취지서 조인, ③ 정식 계약의 순서를 좇아 진행하여 약 10개의 지방자치체가 취지서 조인에까지 겨우 이르렀지만, 실제로 개교한 것은 1990년 시점에서 3개교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 6년 동안 1개교가 폐쇄되고, 현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형태 1의 미국대학 일본분교는 앞에 말한 남일리노이대학 新潟校와 미네소타 주립대학기구 秋田校 2개교뿐이다. 또한 CPTE의 중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체 독자로 대학 유치를 진행하여 개교한 관서 지방의 2개교(大阪府 岸和田市の 미국국제대학 일본교, 京都府 龜岡市の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京都校) 중 미국국제대학 일본교는 개교 2년이 채 못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폐교하게 되었다.

미국대학 일본분교의 대부분은 왜 이같이 실패로 끝난 것일까? 첫째 원인은 CPTE가 미국대학 유치에 즈음하여 일본측 지방자치체에 요구한 모든 조건(인센티브, 프로그램) 그 자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시한 조건은 ① 대학(일본분교)의 부지는 국공유지를 무상 대여, ② 건물은 장기 리스 또는 장기 저리 용자, ③ 그 고장기업의 기부금 제공, ④ 장학금 제도 수립, ⑤ 졸

업후 1~2년의 기업연수 인턴십, ⑥ homestay 제도의 정비 등이었다. 이들의 조건을 보는 한, 대학의 물리적인 면은 모두 일본측 지방자치체가 거의 무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호조건에 미국대학이 관심을 나타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지방자치체 측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조건 정비를 해도 설치 인가 기준이 엄격한 일본의 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비교하면 돈이 현저히 적게 들고, 지역의 국제화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달콤한 기대가 앞선 것이다. 게다가 미국대학 유치의 시비에 대해서 주민의 의지를 묻지도 않고 행정 위주로 일을 진행시킨 것에도 문제가 있었다. 거품경제가 파탄하고 자치체의 세수가 악화됨에 따라 재원을 좀먹기만 하는 미국대학의 일본분교에 대해서 주민은 의문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많은 市·町의 의회는 미국대학 일본분교의 유치를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취지서 조인은 하였지만, 정식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속출하게 되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식 계약을 거쳐 개교한 경우라도, 이만큼의 호조건을 제공하고 유치한 이상 미국대학 일본분교는 '자신들의 市와 町의 대학'이라는 착각을 자치체 관계자가 갖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학의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학생의 평가기준)에까지 일본측이 간섭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대립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또 岸和田市가 유치한 미국국제대학 일본교처럼 미국의 본교 자체가 도산하여서 일본분교 역시 폐교에 몰린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대학의 도산은 드문 일 아니지만, 일본의 지방자치체로서는 대학의 도산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편, 미국대학 측도 예기치 않은 사태에 당혹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 지방자치체의 대학 유치열이 갑자기 냉각되어 지원 체제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더욱이 기대했던 학생 모집이 정원에도 미달하고 모집한 학생의 질적 수준은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었다. 미국측의 대학 관계자는 학생의 학력수준(주로 영어)이 낮음에 놀랐지만, 그것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한 것도 아니었다. 원래 지방의 소도시에 위치하고, 시설·설비가 나쁘며, 수업료는 일본의 대학보다 높은 미국대학의 일본분교에 우수한 학생이 모일 리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1990년대부터 18세 인구가 급감한 것도 계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미국대학 일본분교 유치는 이처럼 원래 일·미의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은 불행히도 '상호오해'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5. 일본분교의 실태 - 격감한 응모자

'일본에 있으면서 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라든가 '입학은 일본에서, 졸업은 미국에서'라는 화려한 표어로 시작한 미국대학 일본분교의 대부분이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교에 계속 몰리고 있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인 학생이 모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국제적 대학이라는 사전 선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1~2년간은 본교에서 파견된 미국인 교사로부터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받을 뿐이고, 영어실력이 일정한 수준

(TOEFL 점수가 500점 이상)에 도달하지 않으면 미국의 본교에서 하는 전문과정에서의 진급은 허락되지 않고, 중도퇴학으로 쫓겨난다. 입학한 일본인 학생의 약 3할 이상은 최초의 집중영어 과정에서 실패하고, 유급 없이 중도퇴학을 당하는 처지가 된다. 만약 집중영어 과정을 패스하고 교양과정에 진급해도 수업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본교의 전문교육과정에 진급하고 졸업하기까지는 5~6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 미국의 대학기준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본인 학생은 탈락하고, 학생수는 감소한다는 알곡은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학비도 일본의 사립대학보다 상당히 비싸다.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기만 한다면, 일본의 '영어전문 학교'에 다니는 쪽이 수업료도 싸고 유리한 방법이라고 일본인 학생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둘째로 앞에 서술한 형태 2, 형태 3의 미국대학 일본분교 중에는 미국에서도 기준인정(accreditation)을 받지 못한 대학과 재정 기반이 빈약한 대학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대학의 시설 설비는 민간의 빌딩을 임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장 이전 터를 이용한 조잡한 곳이 많고, 전혀 대학과 같은 분위조차 없었다. 또한 수업료가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불충분한 대학이 많았다. 미국의 본교에서 파견된 교원수도 최소로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대학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애초에 2~3백 명이었던 학생도 몇 년이 지나서 수십 명으로 격감하고 부득이하게 폐쇄당한 대학이 속출하였다.

셋째로 일본인 학생에게 더욱 큰 문제는 고생해서 이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미

국의 대학졸업증서가 일본 사회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미국대학의 일본 유치가 열기를 띠고 있던 시기에는 그 지역기업도 국제화시대의 인재로서 그들의 고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그런데 근년 경제불황으로 어떤 기업도 신규채용을 극도로 삼가고 있고, 미국대학 졸업의 학력만으로는 취직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유학 경험자도 많아지고, 미국대학 졸업의 희소가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문부성은 이들 대학을 일본의 대학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물론 고교의 진로지도 담당교사도 고교생을 미국대학 일본분교에 보내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6. 실패의 교훈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일본대학의 국제화는 크게 진전하였다. '유학생 받기 10만인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1996년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5만 명을 넘었다. 또한 일본인의 해외 유학, 특히 미국 유학은 여전히 대성황이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이 외국대학과 체결한 대학간 교육교류협정은 4,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 대학의 해외 진출(특히 사립대학의 미국분교)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화가 진전되는 중에 미국대학의 일본진출만이 실패로 끝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 이 실패의 경험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로 미국측도 일본측도 이 사업을 비즈니스라고 생각한 것에 실패의 최대 원인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진출하는 측인 미국대학도, 예전부터 외국에 학교를 세우는 선교사가 지닌 사명감이나 이념은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 또 미국측의 교육적 필요성에서 나온 것도 없었다. 즉, 미국의 대학생에게 해외 체험을 시키는 거점으로서 일본분교를 만든다는 발상은 아니었다. 요컨대 미국대학의 일본분교는 당시 경기가 좋았던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였고, 따라서 학생의 교육 그 자체보다도 이윤 추구가 우선되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학생수가 감소하여 대학운영이 적자가 되면, 재학생의 구제도 생각하지 않고 안이하게 철수해 버리는 대학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로 대학의 분교를 받아들이는 일본측에서 유치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일부 정치가나 중소기업주, 이윤추구형의 전문학교, 그리고 전혀 대학 경영의 경험이 없는 소규모의 지방자치체(市·町)였다. 그들은 각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정치가는 일·미 경제마찰 해소를, 기업주나 전문학교는 이윤 추구(수업료 수입)를, 지방자치체는 대학 유치를 통해서 市町村의 국제화(활성화)를 기대하는 등 모두 각자의 이익을 꾀하고 대학교육 그 자체는 뒤로 미루어 버렸던 것이다.

셋째로 이같은 미국대학 일본분교 유치에 관계한 일본측 책임자의 대부분은 대학교육에는 아주 초보자들이었다. 그들은 미국의 대학 사정에도 정통하지 않았고, 질 높은 대학교육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또 미국측의 대학 경영자도 일본의 대학 사정에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형의 대학

교육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용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일본의 18세 인구가 급감하는 것이나, 젊은이의 대도시 지향성이 강하다는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소도시나 농촌의 자치체가 진행하는 대학 유치계획에 안이하게 편승하였던 것이다.

넷째로 미국대학의 일본 진출에 대해, 일본의 문부성이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았던 것에 의문을 던지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미국대학 측은 애초 일본분교는 미국의 대학으로서 경영하는 것이었고, 일본의 대학으로서 인가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그러한 의지도 없었다. 일본의 대학설치 인가 기준을 만족시키는 학교법인을 만들려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 것은 미국측도 일본측 파트너도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대학의 일본 진출 실패의 원인이 문부성의 규제에 있다고 하는 의견은 틀린 것이다.

물론 미국대학 일본분교는 여기에서 말한 실패의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템플 대학 일본교(東京都)를 비롯하여, 지방자치체가 유치한 남일리노이대학 新潟校나 미네소타 주립대학기구 秋田校 같은 성공사례도 있다. 이들은 모두 경영이념이 명확하고, 장기 전망 아래 확실하게 교육활동을 쌓아올려 온 미국대학 일본분교이다. 특히 후자인 두 대학의 경우, 지방자치체뿐만 아니라 縣 수준의 지원체제도 있고 일본대학과의 협력관계도 계속 쌓고 있다. 대부분의 실패사례 중에서 이들의 성공은 일·미 양국에게 희망적인 사례이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많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공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

7. 한국 교육에 대한 시사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대학의 일본 진출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패의 책임이 많은 부분 일본측에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이 괴로운 경험은 미국대학의 한국 진출이 문제되고 있는 한국 교육계에 대해서도 다소 참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교육개혁을 추진중인 한국이 미국대학의 진출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① 교육제도 매스컴도 미국대학의 한국 진출(한국분교)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대학의 유치에 지역이나 기업의 국제화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 미국대학의 진출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특히 한국측 파트너는 일정한 재정기반과 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순한 영리 목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③ 한국측의 유치 주체(기업, 학교법인, 지방자치체 등)는 미국대학의 한국분교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학이라는 인식을 갖고 협력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식 교육시스템의 특징을 한국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④ 진출 대학은 학생 확보에 대해 명확한 장래 예측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미국대학 측은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18세 인구가 감소할 것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떠한 학력

수준의 학생이 미국대학의 한국분교를 지원할가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⑤ 한국은 금후 대학의 설치에 관해서는 규제를 완화한 '준칙주의' 방식을 취할 것 같지만, 미국대학의 한국분교를 국내법상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이 미국대학의 일본분교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각종학교와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학부모이나 학생이 미국대학 일본분교로부터 멀어져 간 경위가 있다.

⑥ 일본의 경험으로 보면, 미국의 대학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해외분교 설치를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처럼 한국의 지방자치체가 공적재원으로 미국대학을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와의 합의 형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⑦ 일본의 경우, 일본 국내의 대학과 미국대학 일본분교와의 교류는 거의 없고 대학의 국제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의 해외분교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규모가 작고 영리 목적의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의 국제화는 외국 대학과의 유학생 교류나 대학간 교육교류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 낸 조금은 부정적인 교훈이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학력에 대한 뜨거운 기대나 외국 대학(특히 미국의 대학)에 대한 높은 평가 등 일본과 한국에는 꽤 유사한 교육풍토가 있는 만큼 일본의 실패 경험은 다소의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다. 바라건대 한국의

교육계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미국대학의 유치(한국분교)가 한·미 양국의 상호 이해에 공헌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地方の時代と 教育の 國際化—特輯·美國大學分校誘致の 現状と 今後の 問題”, 『地方行政』, 1989. 8. 3.(時事通信), 2-7項.
- 朝日新聞社, 『朝日ジャーナル』(週刊), 1990. 6. 22.
- “日本校に選別の 時—甘くないよ米國大”, 『日本經濟新聞』, 1991. 7. 1.
- “海外大學日本校—自治體誘致に 熱”, 『日本經濟新聞』, 1991. 11. 10.
- “米大閉校で活性化に影—市民の合意形成に課題”, 『日本經濟新聞』, 1993. 10. 23.
- “生き残りへ自助努力を—經營苦しい米國大學の日本校”, 『朝日新聞』, 1993. 10. 23.
- “米國大學日本校①~⑥(連載)”, 『中國新聞』, 1993. 7. 25~7. 31.
- “開校以來4年余りで開校へ—テキサスA&M大郡山校”, 『内外教育』(時事通信), 10~11項, 1994. 5. 6.
- Chambers, G.S., & Cummings, W.K., *Profiting from Education : Japan—United States interna-*

tional educational ventures in the 1980s, 1990(日本語譯은 『アメリカ大學日本校』, アルク出版, 1990).

Margaret Graves, “U.S. Universities in Japan : Some Painful Lessons”, *Planning for Higher Education*, Vol. 24(1995), pp.17~23.

Misop Song, “The Closing of American Branch Campuses in Japan : Effects of Political, economic, cultural, social and educational variables”,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의 세계화 추세와 전망—1996년도 한국고등교육연구회 학술세미나보고서』, 61~88쪽.

The English Journal, No.39(1988), No.61(1989), アルク出版.

The US/Japan Committee for Promoting Trade Expansion(일미무역확대촉진위원회), *International Lobby—digest report*, Part 1~3(1986~1989), (Both in Japanese and English).

馬越徹/일본 히로시마 대학 교육학부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이수하였고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나고야 대학 교육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서로 『韓國近代大學의 成立과 展開』, 『現代 아시아의 教育』 등을 발표하였다.